

백원국 제2차관, “겨울철 도로·철도 현장, 안전에 빈틈 없어야” - 6일 강원지역 도로제설, 철도건설 현장 찾아 안전사고 예방 당부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6일(수)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내 제설창고와 근무자 대기소 등을 방문해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백 차관은 제설대책 추진상황과 제설 장비·자재 등을 점검한 뒤, “도로 제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올겨울 폭설·한파에 대비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”면서,
 - “도로결빙 및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안전관리와 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(블랙아이스) 예방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,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현장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 - 또한,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, “жат은 밤샘작업 등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등을 확보하여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”을 강조했다.
- 이어서 백 차관은 춘천-속초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.
 - 이 자리에서 “춘천-속초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의 이동 편의와 균형 발전 증진 등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또한, “지역 특성상 주요 공정의 대부분이 터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사 중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 최소화와 겨울철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”을 강조했다.

2023. 12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